

## 대순사상 연구의 경향과 과제

윤 용 복 \*

### ■ 국문요약

『대순사상논총』과 『종교연구』, 그리고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을 보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대순사상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접근 내용은 신앙이나 교리, 의례, 윤리를 주제로 한 연구와 함께, 타 종교와 비교를 한 연구가 있다. 비교 연구는 대순사상의 여러 요소를 도교, 유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나 원불교 같은 한국 민족종교의 그것들과 상호 대조한 것이다.

이런 연구들 못지않게 이제는 대순진리회의 역사를 서술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자료의 정리나 부족 문제로 인하여 종단의 역사 서술이 어렵다면, 종단 역사 초창기에 활동했던 신앙인들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 연구와 함께 교단의 신화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이 지니는 의미나 상징 등이 여러 가지로 설명 또는 해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제별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는 것도 필요하다. 한 사람의 연구자가 다양한 분야에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주로 대순사상학술원에서 주도하는 『대순사상

---

\* 아시아종교연구원 원장, E-mail: yoonjong57@gmail.com

논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종교학계의 여러 학회 간행물들인 『종교연구』나 『신종교연구』에 대순사상의 연구 결과물을 수록하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는, 정산과 우당의 입장에서 증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창설자인 우당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우당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또는 『대순회보』에 나타나 있는 우당의 여러 훈시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순사상논총, 종교연구, 신종교연구, 역사적 연구, 신화적 연구, 우당

- I. 들어가는 말
- II. 종단 관련 학술지 및 출판물
- III. 외부 학술지 및 학위논문
- IV. 대순사상의 연구 경향과 과제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대순진리회 외부의 시각에서 대순사상이 이제까지 어떤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되어 오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연구의 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주제들이 더 연구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이 구체적 논문이 아니고 매우 짧게 요점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서술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연구나, 연구사의 검토 등은 제외하고 중심적인 주제만을 가지고 서술할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될 연구들은 대순진리회 종단 관련 학술지인 『대순사상논총』(『대순진리학술논총』)에 수록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하고 『종교연구』나 『신종교연구』, 그리고 그 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과 대순진리회 관련 석·박사 논문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은 2018년 3월 대순사상학술원에서 발간한 『대순사상 학술연구 색인집』<sup>1)</sup>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후의 논문들은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그리고 한국학술정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의 온라인 검색을 통해 파악하였다. 다만 단행본은 제외되었는데, 대순사상만을 다룬 단행본의 숫자가 많지 않고 또한 연구서라기보다는 개괄서나 안내서 등의 성격을 지닌 것이 많기 때문이다.

1)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 학술연구 색인집』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18).

## II. 종단 관련 학술지 및 출판물

현재 대순사상 관련 대표적인 학술지는 『대순사상논총』이다. 우선 여기에 수록된 연구의 주제와 경향들을 파악해 볼 것이다. 『대순사상논총』은 1996년 1집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다음 해에 3집까지 발간되었다. 1집은 창간호로 대순사상을 전반적으로 개괄한 성격의 연구논문들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2집부터 15집까지는 매회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들이 게재되었다. 그것은 음양합덕(2집), 신인조화(3집), 해원상생(4집), 도통진경(5집), 종지(6집), 안심안신(7집), 경천수도(8집), 성(9집), 경(10집), 신(11집), 삼요체(12집), 무자기(13집), 지상신선(14집), 지상천국(15집)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논문 발표자들은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15집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의 주요 필자들은 정대진, 이항녕, 임영창, 안중운, 양무목, 최동희, 윤기봉, 윤재근, 박용철, 고남식, 이경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항녕은 ‘음양합덕사상의 현대적 의의(2집)’, ‘신인조화사상의 현대적 의의(3집)’,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4집)’ 등 각 주제의 ‘현대적 의의’를 주로 발표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2003년 16집부터는 자유 논문이 수록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대순사상과 관련 없는 논문들도 수록되었다. 그리하여 17집에는 대순사상 관련 연구가 2편, 18집에는 단 1편만이 실리기도 하였다. 특히 매년 2~3권이 발표되던 이전과 달리 18집(2005년, 1편), 19집(2006년, 1편), 20집(2009년)까지는 제대로 발간되지 못하다가 2013년 21집부터 다시 정기적으로 발간되면서 자유롭고 다양한 대순사상 관련 연구들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분석한 이경원의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김방룡의 「증산사상의 연구 동향과 대순사상의 학문적 과제」(이상 『대순사상논총』 20집, 2009)

가 있었지만, 발표된 논문을 나열하고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김방룡은 주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연구환경에 더 방점이 찍힌 주장을 하였다. 특히 20집은 타 종교의 입장에서 대순사상을 이해하는 연구논문들이 수록되었는데, 주로 유교, 불교, 도교적인 입장에서 대순사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21집부터는 참여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중국학자들의 투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21집부터 2021년 37집까지 사이에 수록된 논문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증산(또는 구천상제) 관련 논문이 25편(증산이 중심 주제가 아닌 것도 포함), 도교와 관련된 연구가 11편(이하 중복 포함), 불교와 관련된 연구가 6편 등이며, 그 외 유교 및 기독교 관련 연구와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 및 서양철학 관련 연구, 그리고 의례 및 교리 관련 연구와 생태론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한편 2007년부터 『대순진리학술논총』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전 『대순사상논총』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순사상논총』에서 이미 선정되었던 주제들을 다시 선정해서 매회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때의 발표자들은 대체로 양무목, 최동희, 김홍철, 노길명, 유재갑, 박광수, 김용환, 김방룡, 이경원 등이었다. 『대순진리학술논총』은 2014년 15집으로 종결되었는데, 15집을 제외하면 모두 『대순사상논총』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로 발간되었다. 『대순사상논총』이나 『대순진리학술논총』이 발행되기 이전에는 『대순회보』에 논문들이 실렸으며, 내부 연구자들의 연구로 이루어진 『상생의 길』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내부 및 외부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문들을 수록한 중심 학술지는 『대순사상논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논총』의 현재의 흐름을 보면 중국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도교와 비교하는 논문들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Ⅲ. 외부 학술지 및 학위논문

#### 1. 『종교연구』와 『신종교연구』 그리고 『종교교육학연구』 및 기타

이경원의 「대순사상의 신관 연구」(『종교연구』 34집, 2004)라는 제목의 논문이 수록된 것을 시작으로 총 16편의 논문이 『종교연구』에 게재되었다. 차선근이 총 8편(공동 저자 포함)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고남식, 박상규, 박용철, 김진영 등 내부 연구자들이 각 1편씩 발표하였다. 또한 강돈구, 윤용복, 우혜란 등 외부 연구자들의 논문도 발표되었다. 타 종교나 사상과의 비교가 6편으로 가장 많으며, 의례 관련 논문이 3편, 종교조직, 신관, 경전, 죽음관 등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대순사상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된 외부 학술지는 『신종교연구』이다. 이경원의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후천론의 특질: 대순신앙을 중심으로」(『신종교연구』 4집, 2001)라는 논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총 37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타 종교와의 비교보다는 대순진리회, 대순사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점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타 종교와의 비교는 도교 및 천도교나 원불교와의 비교들이 있다.<sup>2)</sup> 발표자는 이경원이 총 12편(공동 저자 포함)으로 압도적으로

---

2) 타종교와의 비교를 주제로 한 논문들로는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종교연구』 65 (2011);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9 (2012);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 『종교연구』 75-4 (2015); 나권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에 관한 고찰: 수운, 증산, 소태산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4 (2011); 고남식, 「수운과 증산의 민족주의적 요소 비교」, 『신종교연구』 26 (2012); 이경원, 「동아시아 신종교의 삼교합일론 비교연구: 중화 일관도와 한국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1 (2014) 등이 있다.

많으며 차선근, 박마리아, 정지윤, 고남식 등의 내부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년 2회씩 발행되는 『신종교연구』의 12집(2005년)부터 36집(2017년)까지 거의 매회 내부 연구자들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현재는 다소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8집(2018) 1편, 40집(2019) 1편, 42집(2020) 1편, 44집(2021) 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다. 『신종교연구』의 논문들은 타 사상이나 종교와의 비교가 7편, 수행이나 의례 관련 논문이 4편 등이며 사회복지, 여성관, 성소 등의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신종교연구』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종교교육학연구』이다. 총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김영주 7편(공동 4편 포함), 윤기봉 6편, 윤재근 4편(모두 공동)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고남식, 김승남, 김순자, 구득환, 박희봉 등의 논문들도 수록되었다. 학회지의 특성상 교육 관련 논문이 10편으로 가장 많으며 여성, 사회, 정치, 인권과 관련된 논문들과 인간관이나 상징에 대한 논문들로 발표되었다. 『종교교육학연구』에도 2017년 이후 관련 논문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에 11편의 논문이, 그리고 『문학치료연구』에 4편(고남식), 『동아시아 고대학』에 3편, 『선도문화』 2편, 『한국종교』 2편, 『겨레어문학』 1편, 『동학학보』 1편, 『도교문화연구』 1편, 『한국사상사학』 1편, 『한국철학논집』 1편,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1편, 『동방문화와 사상』 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외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대부분은 대진대학교 소속 연구자를 비롯한 내부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 연구자들의 논문이 외부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이 다소 정체기를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외부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주제는 대부분 대순사상의 입장에서 사회, 문화, 정치 등을 해석하거나 대순사상의 인간관, 세계관 등 대순사상을 해석 내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외부 연구자들인 강돈구(2편), 우혜란(1편), 윤

용복(1편) 등의 논문이 『종교연구』에 게재되어 있을 정도로 외부 연구자가 외부 학술지에 대순사상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혜란의 경우 대순진리회를 이해하려는 측면보다는 미디어 담론이 대순진리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기에 대순진리회의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 2.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2000년 이전까지는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에 대학원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논문이 발표되었다. 1998년 석사과정이 신설되었고(1998년 11월이므로 시작은 1999년부터이다), 2003년 9월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2004년부터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0년 처음으로 대진대학교에서 석사논문이 발표되었고, 2010년에 가서야 박사논문이 발표되었다. 어쨌건 이후 거의 모든 대순사상 관련 학위논문은 대진대학교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16편의 대순사상 관련 박사논문과 63편의 석사논문이 발표되었다(타 대학 포함).<sup>3)</sup> 박사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불교 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연구」 (윤기봉, 동국대학교, 1995)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인격천관을 중심으로」 (이경원, 성균관대학교, 1998)

「대순사상의 인간형성 이론」 (윤재근, 동국대학교, 2002)

「해원 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고남식, 건국대학교, 2003)

---

3) 이것은 『대순사상 학술연구 색인집』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2000년 이후는 대진대학교만의 석사논문을, 2005년(실제는 2010년)부터는 대진대학교만의 박사논문을 수록하여 타 대학에서 대순사상 주제 학위논문을 받은 것이 누락되었다.

「대순사상의 해원과 인존에 관한 연구」 (김승남, 대진대학교, 2010)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조용기, 대진대학교, 2011)

「증산의 신비체험과 천지공사」 (염미양, 대진대학교, 2012)

「교정 민영화에 관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 대순사상에 나타난 해원·보은상생 교의를 중심으로」 (정지윤, 대진대학교, 2012)

「정산 조철제의 교리체계 형성에 관한 연구」 (진정애, 대진대학교, 2012)

「천지공사에 나타난 의례적 성격 연구」 (김태수, 대진대학교, 2013)

「한국 신종교의 최고 신관에 대한 연구: 전통 신관의 전승을 중심으로」 (송태일, 대진대학교, 2014)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나권수, 대진대학교, 2016)

「대순사상의 철학적 탐구: 해원상생의 이념을 중심으로」 (김의성, 성균관대학교, 2017)

「대순진리회 교화론 연구」 (백경언, 대진대학교, 2017)

「대순사상의 영혼론 연구」 (오석, 대진대학교, 2019)

「대순사상의 관왕론 연구: 선·불·유 삼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귀만, 대진대학교, 2019)

「'대순'에 대한 체용론적 연구: 주자 체용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치봉, 대진대학교, 2020)

석사논문의 주제들도 위의 박사논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비교연구보다는 대순사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논문의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타 종교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심 주제는 아니라는 측면이 있다.

#### IV. 대순사상의 연구 경향과 과제

지금까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과 학위 논문들을 검토해보았다. 다만 『대순회보』나 『상생의 길』 등에 수록된 글들은 제외되었는데, 다양한 필자들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논문의 형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내부의 발표자들은 주로 신앙적 측면이 강하고 외부 연구자들은 학문적 논문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순회보』의 성격이다. 『대순회보』는 연구자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논문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순사상논총』을 비롯한 내부 학술지와 『종교연구』와 같은 외부 학술지, 그리고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을 보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신앙이나 교리, 사상, 의례, 윤리 등등과 함께 타 종교와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연구는 도교, 유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나 원불교와 같은 한국 민족종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들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나 대만과의 교류로 인해 중국 도교와의 비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인다.

종교의 역사가 길지 않은 신종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적인 연구들이 다소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종교의 정통성 확보라던지 교리 체계, 또는 사상적 측면에서도 역사적 연구는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통 역사적 사실 이외에 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화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 내지는 자료의 확보도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내부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외부 연구자들은 주로 『대순사상논총』이나 『대순진리학술논총』 등 내부 학술지에만 투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순사상학술원의 정책적

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내부 연구자들도 외부 학술지보다는 점차로 『대순사상논총』에 투고가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외부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들도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본다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종교의 역사적 연구는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초기 교단사와 같은 부분에 좀 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순사상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통 교단사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외부의 연구자들에게도 대순진리회의 역사 연구에 대한 일정한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당장 그런 작업이 어렵다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살아있는 교단 초기 구성원들의 증언 등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연구와 함께 교단의 신화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 역사적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이 지니는 의미나 상징 등 여러 가지로 설명, 또는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대순사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주제별로 나누어서 행해지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대순사상논총』이나 『대순진리학술논총』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처럼은 아니지만, 『대순사상논총』에 수록되는 논문의 경우 절반 정도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년 2~3회에 걸쳐 발표회를 갖는데, 특정 주제가 없이 발표가 진행된다 보니 사실 이름만 대순을 갖다 붙일 뿐인 글들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 투고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되, 발표회는 심포지엄 형식을 갖추고 주제를 제한하여 발표하도록 한다면 발표자나 발표회에 참석하는 다른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

면 발표논문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는 것은 분명 발전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주제별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 사람의 연구자가 다양한 분야에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특정 주제, 예를 들어 의례나 교리, 역사 등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나와서 영역별로 연구가 진행될 때 사상적, 학술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의 경향은 아니지만 외부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에 대한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 연구자들이 현재 『대순사상논총』에 게재하는 논문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종교연구』나 『신종교연구』 등을 비롯한 외부 학술지에 게재되는 대순사상 관련 외부 연구자들을 일정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미 발표된 논문을 선정해서 학술상을 주는 문제, 아니면 한국연구재단의 방식을 따라서 미리 연구계획서를 받고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논문이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에 나머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내부의 연구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내부 연구자들이 『대순사상논총』에만 발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종단의 입장에서 볼 때 『대순사상논총』도 중단없이 잘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외부 학술지에 대순사상에 대한 연구들을 끊임없이 발표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순진리회는 우당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증산으로부터 비롯된 교리연구야 증산을 설명하지만 정산과 우당에 대한 연구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정산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지만 특히 우당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물론 증산, 정산, 우당을 같이 언급한 연구들이 있지만,<sup>5)</sup> 이것도 논문 가운데 하나의 절로서 위치하고 있을 뿐이거나, 또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잠시 인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의 경향들을 보더라도 증산을 설명할 때, 정산을 설명할 때 그냥 그 자체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보다는 되도록 우당의 입장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우당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적어도 이제는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당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또는 『대순회보』에 나타나 있는 우당의 여러 훈시나 이야기를 거론해서 증산이나 정산을 설명하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순사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선명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종파를 지닌 대부분의 세계 종교들은 선명성(비록 교리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쟁으로 인해 갈라졌기 때문이다. 적절한 범주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니니안 스마트의 8가지 범주(또는 차원)로 구분할까도 생각했지만, 사실 그조차도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경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런 구분법을 피하기로 하였

4) 위에 언급한 박사논문 외에 학위논문으로 황희연, 「도주 조정산의 감오득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송하명, 「대순진리회 박우당 도전의 종교활동과 그 의의」(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등이 있다. 정산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이경원, 「대순진리회 연원, 도주 조정산의 종교체험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등이 있다.

5) 윤재근, 「대순사상의 성립과 전개」, 『대순사상논총』 17 (2003); 백경언,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다. 8가지 범주로 설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연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종단의 역사적 연구에 보다 방점이 찍혔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우당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 학술연구 색인집』,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18.
- 고남식, 「해원 주체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_\_\_\_\_, 「수운과 증산의 민족주의적 요소 비교」, 『신종교연구』 26, 2012.
- 김귀만, 「대순사상의 관왕론 연구: 선·불·유 삼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김승남, 「대순사상의 해원과 인존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의성, 「대순사상의 철학적 탐구: 해원상생의 이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김태수, 「천지공사에 나타난 의례적 성격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나권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에 관한 고찰: 수운, 증산, 소태산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4, 2011.
- \_\_\_\_\_,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백경연,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 \_\_\_\_\_, 「대순진리회 교화론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송태일, 「한국 신종교의 최고 신관에 대한 연구: 전통 신관의 전승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송하명, 「대순진리회 박우당 도전의 종교활동과 그 의의」,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 염미양, 「증산의 신비체험과 천지공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오석, 「대순사상의 영혼론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윤기봉, 「불교 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 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_\_\_\_\_, 「대순사상의 성립과 전개」, 『대순사상논총』 17, 2003.

-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인격천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_\_\_\_\_, 「대순진리회 연원, 도주 조정산의 종교체험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 \_\_\_\_\_, 「동아시아 신종교의 삼교합일론 비교연구: 중화 일관도와 한국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1, 2014.
-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 정지윤, 「교정 민영화에 관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 대순사상에 나타난 해원·보은상생 교의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조용기,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진정애, 「정산 조철제의 교리체계 형성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비교연구」, 『종교연구』 65, 2011.
- \_\_\_\_\_,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9, 2012.
- \_\_\_\_\_, 「중국 초기 민간도교와 대순진리회의 종교윤리 비교연구」, 『종교연구』 75-4, 2015.
- 최치봉, 「‘대순’에 대한 체용론적 연구: 주자 체용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황희연, 「도주 조정산의 감오득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Abstract

**The Aspect and Issues of the Study  
on Daesoon Thought**

**Yoon Yong-bok**

Director,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

Considering the tendency of articles in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and *Studies on Religion*, and dissertations and these, it is distinct to witness that studying Daesoon thought has been approached in many ways. For example, the text in the approach includes the studies based on faith, doctrine, rituals, or ethics as well as the comparative studies on other religions. Those comparative studies compare various elements of Daesoon Thought with those of traditional Korean religion such as Daoism, Confucianism, Buddhism, Cheondoism, and Won Buddhism. In addition, researching the history of Daesoon Jinrihoe is as important as these studies.

The shortage of resources and documents may require personal communication through the interview with devotees who were involved in the activities from the early days in the religious order. The mythical aspect of the order is also necessary along with the study on the history, for instance, its background, symbol, significance lay in it, which should be described or

interpreted on the various perspectives. Establishing an expert group by subject is also essential. A single researcher may approach various fields of study, yet the one has no choice but to encounter the limit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development.

Unlike the past, the study on Daesoon Thought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Daesoon Academy of Sciences, which publishes its related journal,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Beside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publish articles on other religious journals such as *Studies in Religion* and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The study of Daesoon Thought should interpret and explain Jeungsan by focusing on the approach of Jeongsan and Wudang. Especially, Wudang, the founder of Daesoon Jinrihoe, is a very important figure. In this regard, many historical facts about him or his teaching and analects in Daesoon newsletters need to be systematically arranged.

**Keyword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Studies on Relig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historical research, mythical research, Wudang